

맛따라 먹찾아!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

17 광주는 지금 꽃잔치

도심서 즐겨요, 화려한 봄꽃의 향연

남도 들녘에서 봄꽃들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다. 꽃과 어우러진 늦봄의 정취를 만끽하기 위해서는 남도 곳곳을 찾아 꽃나들이를 나서는데 제격. 그러나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쉬운 일은 아니다.



광주시 광산구 '쌍암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만개한 철쭉꽃에 봄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쌍암공원 호수 주변에는 1.2km에 걸쳐 5만 그루의 철쭉이 심어져 있다.

잠깐 눈을 돌려보면 광주 도심에서도 봄꽃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 많다.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봄꽃축제는 광주시 북구청이 개최하는 '제19회 주민들과 함께하는 봄꽃잔치'.

꽃이 번잡한 곳을 피하고 싶다면 광주시 남구 송암동사무소 뒷밭을 찾는 것도 좋다. 이곳에서는 60여종의 야생화가 앓다뒹 꽃을 피우고 있다.

광산구 쌍암공원은 호수가를 둘러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철쭉꽃을 보면서 휴식을 가질 수 있는 봄나들이 장소다.

광주시청 앞 광장 일대에서는 2013하계유대회 실시단을 맞이 위해 만들어놓은 꽃담을 비롯 철쭉과 꽃잔디, 상록패랭이, 개나리 등으로 화사한 꽃밭이 조성돼 '꽃의 향연'이 한창이다.

북구청 내달 8일까지 봄꽃잔치

올해로 19회째를 맞는 북구청의 '주민들과 함께하는 봄꽃잔치'는 봄에 피는 모든 꽃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봄꽃 축제다.

북구청 광장 일대에서 2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열리는 이 행사에서는 가정의 달의 상징인 100만송이의 카네이션과 서양화 등 현형색의 봄꽃들이 선보인다. 또 할미꽃 등 야생화 50여점도 함께 출품된다.

이밖에 수석 60점과 목공예품 60점, 토피어리(topiary·자른 그대로의 식물을 여러 가지 동물 모양으로 만든 작품) 30점, 제빵공예품 10점, 종이접기 200점 등 색다른 볼거리도 전시된다. 유명극단의 어린이 인형극과 어린이 재롱잔치, 음악회, 북구 기업사랑 디자인·브랜드전, 조순가정 및 독거노인 가족사진 촬영 등 다채로운 행사도 열린다.

광산구 쌍암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만개한 철쭉꽃에 봄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쌍암공원 호수 주변에는 1.2km에 걸쳐 5만 그루의 철쭉이 심어져 있다.

광산구 쌍암공원은 호수 주변에는 1.2km에 걸쳐 5만 그루의 철쭉이 심어져 있다.

광산구 쌍암공원은 호수 주변에는 1.2km에 걸쳐 5만 그루의 철쭉이 심어져 있다.

광산구 쌍암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만개한 철쭉꽃에 봄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광산구 쌍암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만개한 철쭉꽃에 봄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광산구 쌍암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만개한 철쭉꽃에 봄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광산구 쌍암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만개한 철쭉꽃에 봄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광산구 쌍암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만개한 철쭉꽃에 봄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광산구 쌍암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만개한 철쭉꽃에 봄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광산구 쌍암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만개한 철쭉꽃에 봄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광산구 쌍암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만개한 철쭉꽃에 봄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지난 23일 광주시 서구 빛고를 국악전시관에서 열린 '국악 한마당' 공연에서 퓨전 국악그룹 '지음'이 우리 음악을 들려주고 있다. (광주시 제공)

남도 국악의 진수 맛보세요

광주시가 '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남도 전통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열린 국악 한마당'을 상설 운영한다.

공연'(5월 14일), '가야금 병창, 창작공연'(5월21일), '가야금 산조, 창작곡 공연'(5월28일) 등이 차례로 펼쳐진다.

시는 유명 국악공연단체와 신진예술가 등 25개 공연단체를 참여시켜 공연수준을 한층 높이고 퓨전 국악 연주 등 프로그램

국악 한마당 공연은 국내외 관광객에게 남도의 흥이 깃든 다양한 장르의 전통예술 체험할 수 있는 장을 제공, 관광상품화

광주시 매주 수요일 '국악 한마당'

서구 빛고를 전시관서 상설 공연

을 강화, 우리 음악의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줄 계획이다. 상설공연은 매주 수요일 광주시 서구 빛고를 국악전시관에서 무료로 진행된다. 올해 상설공연은 지난 23일 퓨전국악 그룹 '지음'의 무대로 막을 올렸다. 이어 '퓨전 국악공연'(29일), '기악과 무용, 판소리의 향연'(30일), '전통무용, 모듬북, 판소리 공연'(5월7일), '모듬북, 퓨전

됐다. 한편, '국악 한마당' 공연이 펼쳐지는 '빛고를 국악

전수관'은 국악 전용 공연장으로 150여개 관람석과 함께 다양한 국악기 및 자료전시실, 국악 체험장 등을 갖추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은 물론 광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여향 광주의 전통문화공연을 만끽할 수 있도록 기존 공연과 연계한 상설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062-350-4556, /윤영기기자 penfoot@

신양파크호텔 Summer Wedding Festival 25,500부터 (4,7,9,11월 한정) 062-228-8000

경 광주 송일중·고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 행사 축